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사고와 대인관계가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류현숙^{1*} · 최봉실^{2†}

¹대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남부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021년 11월 30일 접수: 2021년 12월 20일 수정: 2021년 12월 22일 채택)

Impact of Posi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mmunication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Hyun-Sook Ryu^{1*} · Bong-Sil Choi^{2†}

¹Department of Nursing, Daej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30, 2021; Revised December 20, 2021; Accepted December 22, 2021)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와 P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71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인관계($\beta = .404$, $p < .001$)가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긍정적 사고($\beta = .274$, $p = .014$)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 통계량은 20.940($p < .001$)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와 긍정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1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located in G and P c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ere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oibs@nambu.ac.kr)

interpersonal relationships($\beta=.404$, $p<.001$) and positive thinking($\beta=.274$, $p=.014$). Communication competency was explained 47.9% of varia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sitive thinking.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sitive thinking in nursing students were the influential factor on communication competenc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sitive thinking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nd it is considered to be useful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communication competency.

Keywords :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y, positive think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의 핵심역량을 균형 있게 교육해 유능한 간호사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업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치료적 도구인 동시에 인간관계 형성의 핵심이 된다[1].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타인과 원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현장에서 대상자나 의료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대상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다[2, 3]. 이에 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자신들이 기존에 습득했던 의사소통술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4, 5, 6].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임상실습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의욕상실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3, 7].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는 자신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며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8]. 이로 인해 대학생 시기에 완수해야 할 발달과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9]. 반대로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9, 10]. 선행연구[8]에 의하면 긍정적 사고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전공에 불

만족하거나, 주관적 행복감이 낮으면 학교에 적응을 못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도 긍정적 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고, 의사소통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의사소통은 긍정적 사고와 관련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긍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원만한 대인관계가 의사소통능력에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긍정적 사고를 갖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는 타인의 마음, 감정, 느낌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1, 12].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간호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11]. 특히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무현장에서 대상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며 임상실무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5].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현장의 적응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5, 13].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교우관계, 친밀관계와 관련이 있었으며, 친밀관계가 많고, 대인관계 문제가 낮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고 한다[14]. 즉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능력이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고, 의사소통능력을 긍정적으로 강화한다고 보고되었다[10, 12, 14, 15].

따라서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의 긍정적 사고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

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감능력,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6, 14], 자기인식과 감성지능[11], 다문화역량과 다문화효능감[16], 인성요인[17] 등과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문제[5]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요인으로 긍정적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10]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긍정적 사고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어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영향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정도를 파악한다.
- 1.2.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의 차이를 파악한다.
- 1.2.3.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1.2.4.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G시와 P시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학과에서 임상실습을 1학기 이상 경험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표본수 산정 프로그램인 G*power 3.1.9[18]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와 예측변수 9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66명이었다. 총 171부의 설문지부가 수집되어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긍정적 사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대학생활 만족, 교우관계 만족, 부모와의 관계 만족, 전공만족 여부, 거주형태를 포함하여 총 7문항을 조사하였다.

2.3.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Lee et al.[19]이 대학생과 성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49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역할수행 능력(고정관념적 사고극복, 창의/개방적 의사소통), 해석 능력(정보수집, 경청), 목표설정 능력(주도적 의사소통), 자기제시 능력(자기드러내기), 메시지 전환 능력(타인관점 이해)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자주' 5점에서 '매우 드물게' 1점으로 평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et al.[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0이었으며[19],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의 Cronbach's α 값은 .90,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71~.84이었다.

2.3.2. 긍정적 사고

본 연구에서 긍정적 사고는 Kim et al.[20]이 정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긍정적 사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6개 긍정 문항과 2개 부정문항의 총 1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et al.[20]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9이었다.

2.3.3. 대인관계

대인관계 정도는 Schlein, Guerney와 Stover [2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22]이 번안하고, Jeon[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만족감, 소통, 신뢰감, 민감성,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의 7개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Jeon[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도구 전체 Cronbach's α 값이 .94,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61~.88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에 대해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수행 전에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부호화하여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연구에 참여한 이후에도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간호대학생들에게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연구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평균 3.55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메시지전환능력(타인관점 이해)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해석능력(정보수집, 경청) 3.82점, 자기제시능력 3.69점, 목표설정능력(주도적 의사소통) 3.47점, 역할수행능력 3.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고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이었으며, 대인관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민감성 4.01, 친근감 3.95, 이해성 3.92, 만족감 3.85, 소통 3.84, 개방성 3.71 신뢰감 3.6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sitive thinking (N=171)

Variables	Mean	SD	Min	Max
Communication competency	3.55	0.41	2.59	5.00
Interpretation	3.82	0.45	2.71	5.00
Role performance	3.11	0.50	2.00	5.00
Self-disclosure	3.69	0.62	1.29	5.00
Initiative communication	3.47	0.66	1.57	5.00
Perspective-taking	3.85	0.58	2.57	5.00
Positive thinking	3.72	0.54	2.50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81	0.56	2.43	5.00
Satisfaction	3.85	0.61	2.25	5.00
Communication	3.84	0.70	2.50	5.00
Trust	3.66	0.65	2.33	5.00
Intimacy	3.95	0.65	2.67	5.00
Sensitivity	4.01	0.65	2.00	5.00
Disclosure	3.71	0.53	2.60	5.00
Understanding	3.92	0.61	2.50	5.00

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년($t=2.045, p=.043$), 대학생활 만족여부($t=2.392, p=.018$),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t=2.604, p=.010$), 전공 만족($t=4.217, p<.001$)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으며, 대학생활, 교우관계,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성별이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여부 및 거주 형태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긍정적 사고는 대학생활 만족여부($t=2.890, p=.008$)와 전공 만족여부($t=6.23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과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 정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교우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여부와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인관계는 대학생활 만족여부($t=2.532, p=.013$)와 전공 만족여부($t=4.95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과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 정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교우관계, 부모와의 관계 만족여부와 거주 형태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긍정적 사고($r=.644, p<.001$)와 대인관계($r=.664,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정도도 높고 긍정적 사고 정도도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 사고와 대인관계($r=.762, p<.001$)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긍정적 사고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정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Table 3>.

3.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는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긍정적 사고와 대인관계를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대학생활 만족여부, 교우관계 만족여부, 전공 만족여부는 더미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0.335~0.929로 모두 0.10이 상이었으며, 분산팽

Table 2.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sitive thin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1)

Variables	Categories	N	%	Communication competency		Positive think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rade	3rd	90	52.6	3.48±0.36	2.045	3.64±0.54	1.609	3.76±0.50	.917
	4th	81	47.4	3.63±0.44	(.043)	3.80±0.54	(.110)	3.85±0.62	(.361)
Gender	Male	15	8.8	3.61±0.45	0.483	3.87±0.71	.978	3.92±0.61	.701
	Female	156	91.2	3.55±0.40	(.630)	3.70±0.53	(.462)	3.79±0.56	(.485)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Unsatisfaction	30	17.5	3.37±0.43	2.392	3.43±0.54	2.890	3.54±0.55	2.532
	Satisfaction	141	82.5	3.59±0.39	(.018)	3.78±0.52	(.008)	3.86±0.55	(.013)
Satisfaction with friends	Unsatisfaction	12	7.0	3.22±0.37	2.604	3.41±0.42	1.749	3.46±0.36	1.964
	Satisfaction	159	93.0	3.58±0.40	(.010)	3.74±0.54	(.083)	3.83±0.56	(.052)
Satisfaction with parents	Unsatisfaction	6	3.5	3.47±0.28	0.387	3.40±0.66	1.176	3.77±0.67	.134
	Satisfaction	165	96.9	3.55±0.41	(.699)	3.73±0.54	(.242)	3.81±0.56	(.894)
Satisfaction with the major	Unsatisfaction	64	37.4	3.37±0.35	4.217	3.38±0.50	6.239	3.52±0.51	4.957
	Satisfaction	107	62.6	3.66±0.40	(<.001)	3.92±0.46	(<.001)	3.98±0.52	(<.001)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107	62.6	3.56±0.36	0.080	3.76±0.55	1.350	3.84±0.54	.486
	Alone	51	29.8	3.54±0.49	(.923)	3.60±0.55	(.263)	3.74±0.62	(.616)
	Dormitory	13	7.6	3.52±0.44		3.78±0.41		3.78±0.47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y, Posi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71)

	Positive think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r(p)	r(p)
Communication competency	.644(<.001)	.664(<.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762(<.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of the Subjects (N=171)

Variables	B	S. 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436	.206		6.960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292	.075	.404	3.869	<.001	.368	2.715
Positive thinking	.205	.082	.274	2.506	.014	.335	2.989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005	.079	.005	.064	.949	.731	1.368
Satisfaction with friends*	.194	.113	.122	1.716	.089	.794	1.259
Satisfaction with the major*	.025	.062	.030	.399	.691	.719	1.391
Grade*	.093	.053	.115	1.748	.083	.929	1.076

F=20.940(p<.001), Adj. R²= .479, Durbin-Watson=2.146

* Dummy variables

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76~2.989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 값은 2.14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인관계($\beta = .404$, $p < .001$)가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긍정적 사고($\beta = .274$, $p = .014$)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7.9%이었다(Table 4).

4.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긍정적 사고,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0점 만점에 평

균 3.55점이었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와 동일한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Oh[11]의 연구에서는 3.53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3.61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메시지 전환능력 가장 높았고, 정보수집 및 경청의 해석능력이 높았으며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주도적 의사소통), 역할수행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은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통한 의사소통 훈련에서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의사소통과정 중 정보수집과 경청을 통한 해석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및 개방적 의사소통 능력, 주도적 의사소통 능력, 자기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여부,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여부, 전공 만족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3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으며, 대학생활, 교우관계,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았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의사소통능력의 점수가 높은 것은 선행연구[3, 6, 16]의 결과들과 일치된다.

또한, Kim et al.[25]은 실습경험, 학업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이 차이가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전공 및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를 갖고 만족감과 성취감 등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교우관계 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선행연구[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즉,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우관계가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5]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3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Kim[6]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 학년별로는 4학년이 3학년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성비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학년별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선행연구들[6, 23]에서 유사한 결과들을 보여서 3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과 3학년은 임상실습 시작하는 시기로 환자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고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나[6] 4학년에는 반복된 임상실습으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사고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이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9]의 결과 3.62점과 유사하였으나 동일한 도구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10]의 3.59점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사고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사고는 대학생활 만족여부와 전공 만족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10]에서는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에 따라 긍정적 사고가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Lim[10]의 연구에서는 학년별 긍정적 사고의 차이는 없었으며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와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많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제한적이므로 긍정적 사고와 관련된 요인에 관해서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사고는 상황에 따라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의미를 찾고 대처하는 태도이며 대처방식으로[10, 2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학과 적응이나 더 나아가 취업 후 직업 적응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기에 간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긍정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었다. 이는 Jo, Kim, Hwang[3]의 연구에서 3.62점, Oh[11]의 연구에서 3.64점, Kim[13]의 연구결과 3.65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ang[2]의 연구에서는 3.7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론교육이나 교내실습 교육과는 달리 임상실습 중에서는 간호대상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므로[11] 대인관계 역량이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하위영역별로 민감성, 친근감, 이해성 영역의 점수가 높았고, 신뢰감과 개방성 영역의 점수가 낮았다. Yang[2]의 연구에서는 친밀감, 이해성이 높고, 신뢰성 및 민감성의 영역의 점수는 낮아서 일부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을 1학기 이상 경험한 학생들로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가 표현하는 다양한 증상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정도는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3]와 일치된 결과이다. 간호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수행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학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Jo, Kim, Hwang[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인관계 정도가 높아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나 긍정적 사고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Oh[11]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Woo, Bae, Hong[14]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학생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 보다 수월할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긍정적 사고도 정적 상관관계 나타내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 경향이 있었다. 선행연구[10]에도 의사소통능력과 긍정적 사고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와 긍정적 사고로 확인되었다. 즉 대인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 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역량에 높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11], 대인관계 유능성과 공감능력이 의사소통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6],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대인관계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5]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긍정적 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의사소통은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간호업무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역량이다[6]. 이는 긍정적 사고 양식과 원만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과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이외에도 학생지도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인관계 역량과 긍정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긍정적 사고의 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가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긍정적 사고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와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G. H. Kim, H. S. Yoon,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8, pp. 547-562, (2018).
2. Y. K. Yang,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5, No. 2, pp. 99-108, (2018).
3. E. H. Jo, H. S. Kim, S. J. Hwang,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3, pp. 290-298, (2020).
4. S. J. Lee, K. S. Jang,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on Nurse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Emotional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8, No. 2, pp. 73-87, (2014).

5. S. H. Hong,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4, pp. 117-127, (2021).
6. J. I.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3, pp. 118-128, (2021).
7. H. S. Jeong,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pp. 2635-2647, (2012).
8. S. O. Kim, "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n School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0, No. 3, pp. 395-404, (2016).
9. S. O. Kim, S. M. Kim, "Predictors of Positive Thinking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8, No. 3, pp. 1717-1727, (2016).
10. S. A.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Thinking, Empathy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9, No. 2, pp. 61-67, (2021).
11. E. J. Oh,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n Relationships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2, pp. 549-560, (2021).
12. H. Gardner, M. L. Kornhaber, K. Wake. "Intelligence : Multiple perspective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5).
13. Y. S. Kim, "The Effect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10, pp. 773-782, (2018).
14. M. Y. Woo, H. J. Bae, S. J. Hong, "The Convergenc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2, pp. 401-408, (2020).
15. S. Y.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9, pp. 286-296, (2016).
16. Y. A. Kim, S. Y. Jang, "Affecting Fa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5, pp. 399-417, (2020).
17. J. H. Lim, M. H. Choi, "The Influences of Character Factors on the Communication Skill among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3, No. 1, pp. 303-315, (2021).
18.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pp. 1149-1160, (2009).
19.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3).
20. H. J. Kim, Y. H. Oh, G. S. Oh, D. W. Suh, Y. C. Shin, J. Y. Ju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positive think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1, No. 4, pp. 767-784, (2006).
21. S. Schlein, B. Guerny,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University, Philadelphia, (1971).
22.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 human relationship training group counseling”,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pp. 195-204, (1980).
23. S. G. Jeon,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the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1995).
24. G. H. Kim, E. K. Han, D. H. Kim, S. H. Kim, J. E. Kim, H. J. Kim, H. I. Kim, S. H. Min, S. K. Park, Y. S. Bahng, H. J. Oh.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and empath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7, pp. 451-465, (2020).